



박 희 권 상무 · 편집위원장  
(주)하림

## 닭장 현대화에 아파트 정책처럼 투자하면서 관심을 갖자

2006년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일들을 남긴 한해로 기억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 업계 차원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거래 위반에 대한 벌금 26억원 부과와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국가적 차원에서는 온 국민을 웃기고 울리면서 쏟아져 나온 각종 아파트 정책들을 말할 수 있겠다. 정부는 잡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정책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그 효과는 미지수이고, 정책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장관이 물러나고 새로 임명되는 등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많은 붕급 생활자는 평생 벌어도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살 수 없는 현실이 비극이라고 말하면서 삶의 의욕 저하를 토로한다.

우리 축산업의 발전 단계를 4단계로 정리해 보면, 1단계는 Quantity(고기의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과정에 있는 축산)라 할 수 있고, 2단계는 Quality(고기의 맛과 품질을 높여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축산)이라 하고, 3단계는 Pollution(환경 오염을 최소화하여 환경 친화적인 축산)이라 하고, 4단계는 Wealfare(가축의 복지를 생각해서 안락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축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과연 몇 단계의 축산을 하고 있을까?

살펴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1, 2, 3, 4단계를 동시에 실현해야만 존재 가능한 산업이 되었다. 왜냐하면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적인 닭고기, 삼겹살, 소고기 등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와 국산 축산물과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고, 현재의 소비자들은 맛과 건강과 품질을 동



시에 갖추어야 선택하는 소비 성향이 강해져서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시장에서 곧바로 퇴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농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 요인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자체 처리할 수 있어야만 농장을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신규로 축산업을 하고 싶어하지만 이런 환경 규제로 인해 인허가를 받지 못해서 축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우리 국민과 정부가 아파트에 지금처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근본적인 이유는 편안한 안식처 확보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잠자리 확보보다는 투자로서 시세 차익에 의한 금전적인 이유가 훨씬 큰 이유가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이런 아파트에 대한 무한한 관심을 우리 산업의 현대식 닭장, 즉 계사에 집중시키면 어떨까? 1채 만드는데 금액이 1억원이 넘게 소요되고, 넓이가 400평이상 되면서, 한꺼번에 2만수 이상 동시 사육이 가능한 계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유사한 점이 매우 많다. 우선 건축비용이 1억원대로 비슷하다.

그리고 사람과 닭은 집단으로 모여 살게 되어 있다. 밀집되어 생활하는 공간으로도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밀집된 삶은 장점과 위험성이 상존하여 쾌적한 환경 제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맑은 공기를 공급해야 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시설을 만들고, 여과시설을 이용하여 이물질의 혼입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이런 원리를 생각한다면 계사 신축시에는 내가 살아야 할 아파트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계도에 맞게 정성껏 만들어야 한다.

현재 우리 육계산업에서 현대식 계사와 기존 재래식 계사와의 비율을 따져보면 현대식 계사는 1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지표는 우리 산업이 갈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산업에서 고려하지 못한 4단계 '닭의 복지' 까지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아파트와 같은 계사를 계획적으로 짓자. 많은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정부의 제도 개선을 통한 정책적인 지원과 계열업체의 기술적인 연구와 모델 개발, 그리고 사육농가는 이런 아파트와 같은 현대화된 무창계사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계사 현대화에 임해야 한다.

올해는 속설이라고 하지만 황금돼지의 해로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한다.

우리의 자산인 닭에게도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해 줄 계사가 더 많이 지어지는 해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 🐔